

#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교육이 미치는 영향 분석 예상: 창업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교육효과성과 심리분석을 통한 정부지원정책 모색

이준호\*

단국대학교 벤처경영학과 석사과정

남정민\*\*

단국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수

## 국 문 요 약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가 곧 3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안정된 정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고립을 막고,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미래 통일 역군을 만들고자 한다. 본 논문은 창업교육 전, 후 창업동기 및 의지, 기업가정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지적으로는 국내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심리를 분석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와 정부지원정책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 1. 서론

현재 2016년 3월 기준(통일부)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은 2만 9천여명(총 29,137 (남:8,580명, 여:20,557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부, 공공 및 민간단체의 다양한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수준은 한국국민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직면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진로의 선택이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과거의 경력을 다시 이어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교육적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합법적이지 못한 직업을 선택하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여 그들의 안정적 사회활동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립 방법의 일반적 방식은 취업을 하는 것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고소득의 안정적인 정규직에 취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출신지역이나 학력으로 인한 제한장벽이 없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창업은 직장생활에서 누릴 수 없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정년 없이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창업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창업을 하기에는 엄청난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 한국사회 일반인들 역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북한이탈주

\* 12jabez@naver.com

\*\* chy555@hanbat.ac.kr

민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것 또한 옳지 못 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자본주의경제체제, 설립 및 운영자금 등 기초자산을 비롯하여 창업을 위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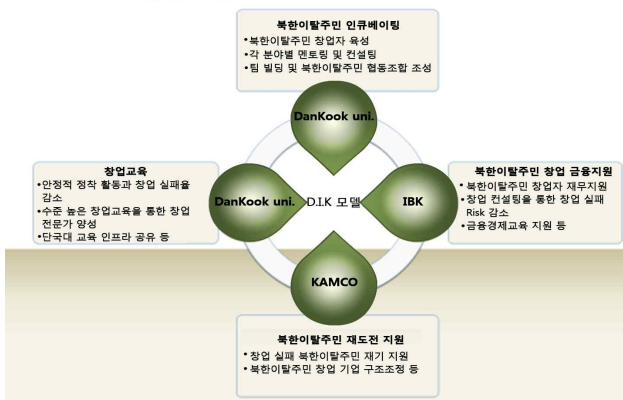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안정화 정착을 위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한 후, 그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변화를 측정하여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식 심리분석을 통하여 그들이 국내에서 원하는 진정한 진로탐색과 정부지원정책의 도출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국내 안정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연구 배경

### 1) 북한이탈주민 창업교육

북한이탈주민의 창업교육은 D.I.K모델<sup>1)</sup>(Dankook-IBK-Kamco)을 기초로 2달 간의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들에게 맞는 창업교육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후 창업교육을 받은 교육생과 그렇지 못한 비교교육생들과의 한국사회 정착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창업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여 올바른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 입국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지만, 국내에서의 차별적인 경제활동을 겪으면서 차츰 소극적으로 변화 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진로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됨으로써 정부와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며, 정부지원정책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창업이라는 진로를 선택하여, 주도적인 경제적 활동을 이끌어 내고자 D.I.K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D.I.K 모델 : Dankook(  )-IBK(  )-KAMCO(  )



D.I.K.모델은 단국대학교, 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기관)이 연계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창업교육(기회)-창업 금융지원(기업가)-제도전 지원(자원)의 완전한 프로세스로 최종 사업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한 하나의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통합적 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2) 북한이탈주민과 창업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sup>2)</sup>. 북한이탈주민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귀순자’, ‘귀순용사’, ‘탈북자’, ‘탈북주민’, ‘새터민’ 등으로 시기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후 용어가 딱딱하고 법률적 용어라는 점에서, ‘탈북자’는 어감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여 통일부와 민간단체의 공모를 통해 2005년 ‘새터민(-民)’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새터민이 ‘새로운 곳에 터전을 일구는 사람’이라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와 한국사회 일부에서는 해당 용어가 부자연스럽고, 아직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용어 사용에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해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이면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요컨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여전히 대중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탈북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창업(創業)’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Keeble & Wever, 1986). 학술적으로는 기존 업체 중에서 분명한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새롭게 생겨난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규정한 Allen(1961)의 정의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정의에 따라 신생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업체에서 파생된 자회사 및 새로운 독립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하여 자회사 또는 분공장(branch factory)은 창업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김용웅·차미숙, 1994).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법적으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

1) 중소기업학회(37-4-11) 북한이탈주민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D.I.K 모델 제시) ‘조봉현,남정민,이준호,최이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정하고 있다<sup>3)</sup>. 학계를 살펴보면, 박춘엽(1991)은 창업을 사람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을 동원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김중재(1993)는 기업의 창업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로 정의하였다. 정대용(1997)은 이전에 없던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활동을 창시한 기량이라고 보았다. 정리하면,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시작(Start-up)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쟁 대상과 방법, 소비자의 취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혁신적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3)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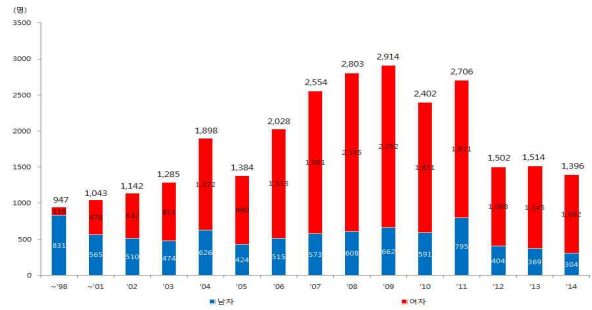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해 2015년 10말 기준 남자 8,442명, 여자 20,053명 총 28,495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2007년 2월에는 10,000명, 2010년 11월에는 20,000명을 넘어섰으나, 20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명대로 입국인원이 축소되고 있다. 탈북의 원인으로는 북한체제에 대한 반발, 식량난 등 경제악화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탈북시기와 개인에 따라 상이하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비인간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정치적·사상적 동기와 이에 따른 신변안전의 이유가 주된 이유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식량난 등 경제적 동기 외에도 출신성분, 체제불만 발설로 인한 위협 및 갈등, 유학 중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 느낀 조국에 대한 회의 등 탈북원인이 다양했다. 2000년 이후부터 가족단위,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의 입국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 받아서 살기 위해, 이미 입국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더 나은 교육 기회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조은상 외, 2012)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구분	'13	'14	'15(잠정)	'16.3	합계
남	7,947	305	251	77	8,580
여	18,175	1,092	1,025	265	20,557
합계	26,122	1,397	1,276	342	29,137

자료 : 통일부, 2016.3월말,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4) 북한이탈주민 창업현황5)



자료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2015) 재구성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 추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하나재단이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창업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sup>6)</sup>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고용주는 195명, 자영업자는 370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3.0%, 5.8%를 차지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남한 전체 자영업자 비중 16.2%에 비해 3배 가까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 모두 여성 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고용주와 50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북한이탈주민 창업(고용주+자영업) 실태 (2014년 기준)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거주기간			
		남	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년 미만	3~4년	5~10년	10년 이상
조사자 전체(명)	6,459	1,953	4,506	993	1,566	2,606	1,036	232	849	1,644	2,846	1,121
고용주 전체	195	3.0%	0.3%	0.3%	2.8%	4.0%	3.6%	1.3%	0.1%	1.4%	2.9%	7.9%
자영업자 전체	370	5.8%	1.9%	1.9%	5.2%	6.9%	7.8%	2.6%	1.2%	2.4%	6.5%	12.2%
고용주+자영업자 전체	565	8.7%	2.2%	2.2%	8.0%	10.9%	11.4%	3.9%	1.3%	3.8%	9.4%	20.1%

자료 :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14) 재구성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

4) 통일부, 2016년 03월 기준

5) 북한이탈주민 창업 활성화를 위한 DIK 모델 제시 ‘조봉현, 남정민, 이준호, 최이섭

6)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이들을 제외하고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1997~2013년까지의 국내 입국자 중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3,1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유효한 12,777명을 최종 선정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북한이탈주민 창업 데이터는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기간(2014년 7월~9월) 내 6,459명의 취업자 자료를 추출해 사용함.

### 3. 연구가설 및 모형

#### 1) 연구가설

창업 성공을 위한 요인들은 가르치고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다.(Gottlieb& Ross, 1997) 경영사상사로 인정받는 Drucker는 ‘창업가의 신화’는 마술도 아니고, 미스터리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하나의 교과목이고, 가르쳐 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85).<sup>7)</sup>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성공 창업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제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은 취업을 위한 직무 교육 중심으로 대부분 진행되어 왔으나. 그들의 경제적 활동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없었다. 이에 창조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그동안 국내 일반인에게 보여왔던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자 한다. 또한 창업교육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진로탐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후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싶다.

가설 1. 창업교육이 교육생들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창업교육은 개인별 창업동기 및 의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창업교육 및 지원 사업”에 참석한 32명 중 창업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중 이번 창업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육생 30명을 비교 집단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생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활동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을 마친 인원을 선발하여 창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창업교육은 진로탐색,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이해, 북한경제와 한국경제의 이해와 한국사회에서의 창업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자금관리 및 리스크 관리 등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의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25%, 여성 75% , 학생 25%, 일반 75%, 창업경험 있음 40%, 창업경험 없음 60% 향후 창업계획 있음 90%, 향후 창업계획 없음 10% 등을 차지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분포에서 20대-45%, 30대-40%, 40대-15%로 청년창업이 가능한 연령대를 선발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창업교육 전, 후에 따라 교육생과 비교육생에 대한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미결정 요인을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 방법을 사용하며, 창업교육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며, 교육 후 교육생의 창업동기와 의지, 기업가정신이 교육생들의 개인적 특성인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미결정 요인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창업교육이 교육생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교육 후 진로요인이 창업동기 및 의지 그리고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 후 분석방법은 사후분석-다중비교를 위한 Tukry법, Scheffe법, Bonferroni법 등이 있으나 각 cell의 크기(즉, 각 집단의 케이스 수)가 다르기 때문에(교육생 20명, 비교육생 30명) Scheffe법과 Bonferroni법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보고 차이를 보다 잘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택할 것이다.<sup>8)</sup>

<표 3> 비교육생(교육 전) 기술통계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창업동기및의지	30	3.0	4.0	<b>3.593</b>	.2545
기업가정신	30	3.1	3.9	<b>3.427</b>	.2134
진로장벽	30	2.8	3.7	<b>3.264</b>	.2553
진로성숙도	30	3.2	4.2	<b>3.476</b>	.2259
진로미결정	30	2.4	3.7	<b>3.195</b>	.2779
유효한 N(목록별)	30				

<표 4>교육생(교육 전)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창업동기및의지	20	3.80	5.00	<b>4.490</b>	.39723
기업가정신	20	3.43	4.79	<b>3.964</b>	.40306
진로장벽	20	1.18	4.50	<b>2.245</b>	.73625
진로성숙도	20	2.51	4.57	<b>3.037</b>	.41684
진로미결정	20	3.23	4.95	<b>4.175</b>	.47816
유효한 N(목록별)	20				

7) 실업계고교의 BizCool 창업교육 효과 분석(배성현, 이강일,2008)

8) John Neter and William Wasserman, Applied Linear Statistical Codels, Irwin, 1974, .482

## IV. 결론

<표 5>기술통계 비교

	교육생 (N=20)	비교육생 (N=30)	차이(교-비)	비 고
창업동기및의지	4.4900	3.593	0.897	교육생>비교육생
기업가정신	3.9643	3.427	0.537	교육생>비교육생
진로장벽	2.2455	3.264	-1.018	교육생<비교육생
진로성숙도	3.0371	3.476	-0.439	교육생<비교육생
진로미결정	4.1750	3.195	0.980	교육생>비교육생

교육 전 창업동기 및 의지, 기업가정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에 대한 설문은 한 결과 창업동기 및 의지는 교육생이 높게 나왔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이 부분이 교육 후에 얼마나 향상되느냐에 따라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 역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진로장벽에 대한 부분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낮게 측정되었으나, 진로성숙도는 의외로 비교육생이 높게 나왔다. 이는 창업교육 후 중요한 비교 항목이 될 것이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항목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크게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교육 후 교육생과 비교육생의 진로미결정 항목에 대한 차이로 창업교육의 효과성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광복 71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질감과 부정적 인식으로 그들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을 뒤로 하고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한국사회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안정화 정착에 관심을 기울일 때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경제적 고립에 빠지는 악순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하여 맞춤형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올바른 창업교육을 제시하여 그들의 한국사회 안정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 향후 다가올 통일시대의 미래 역군을 육성하여 통일 후 조속한 경제적 융합과 민족적 결속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그들의 삶에 대한 안정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질감과 부정적 인식으로 그들의 안정

적인 삶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을 뒤로 하고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한국사회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안정화 정착에 관심을 기울일 때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경제적 고립에 빠지는 악순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미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하여 맞춤형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올바른 창업교육을 제시하여 그들의 한국사회 안정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 향후 다가올 통일시대의 미래 역군을 육성하여 통일 후 조속한 경제적 융합과 민족적 결속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그들의 삶에 대한 안정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조봉현·최이섭·남정민·이준호, 2015, “북한이탈주민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산.학.관 협력체제(D.I.K. 모델)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학회 37, 4-11
- 김용웅·차미숙, 199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창업형태 연구”, 국토연 94-18, 국토개발연구원, 6.
- 김중재, 1993, “현대중소기업경영론”,
- 박영사·박춘엽, 1991, “한국과 미국의 · 창업지원체제의 비교: 벤치마킹식 접근”, 중소기업연구, 19(1), 251-277.
- 신효숙, 2015, “2014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와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3월, pp. 3.
- 윤국, 2013, “창업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경험”,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인진, 2000,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 모델”, 아세아연구, 439(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이광희·김영배, 1998,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성패요인: 우리나라 전자부품 중소기업 분석”, 「기술혁신연구」, 제6권, 제2호, 122-158.
- 정대용, 1997, “창업스칼”, 21세기북스.
- 조은상·김수원·선한승, 2012, “북한이탈주민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 개발 연구”, 「기본연구」, 2012-3, 16.
-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13.
-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이 본 착한(着韓)사례”, 남북하나재단 연구총서, 02, 18-32.